

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 예산 및 기금 15조 4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462억원 증액된 15조 4,10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수준이며, 2011년 증가율 1.3%에 비해 2.4%p 증가된 규모로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이차보전(21억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축산·원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의 실질적인 용자금(2,125억원)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5.1% 증가한 수치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7,348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3,513억원, 식품업 분야에 6,88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2012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안의 가장 큰 특징은 FTA 등에 대응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물가·기후변화·축산업선진화 등 당면현안 해결 및 농식품 분야 미래준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실례로 축산·원예·과수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2011년 2,450억원에서 2012년 6,051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이 15.3% 증가했으며, 농수산물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이 14.4% 늘었다.

한편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보도자료실 참조.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00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식품시장규모 245조원, 농식품 수출 200억불, 식품산업 고용을 200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R&D 투자를 2017년까지 4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식품소재·가공 등 18개 핵심 기술을 개발, 식품기술을 선진국 대비 85% 수준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2015년까지 전북 익산에 가능성 평가 등 3대 R&D센터를 구축하고, 150여개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매출 4조원, 고용 2만2천명이 효과가 있는 연구·수출지향적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식품모태펀드를 2017년까지 4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100억원 기업 2천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논에 타작물 재배 장려 등으로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60%로 확대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 138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해외농장 38만ha를 개발하는 한편 해외 곡물회사를 설립, 2015년까지 400만톤(연간수입량의 30%)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지역전략식품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하고, 매출액 50억원 수준의 농공상용합형 기업 300개소도 육성키로 했다.

또 육가공·유가공·수산물·곡물·인삼·채소 6대 분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육가공산업은

축산물 즉석판매장 등 고품질 햄, 소시지 제조 · 가공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 · 가공 · 판매 · 유통을 일관하는 대형 패커를 육성키로 했다.

유가공산업은 가공용 원료유 지원사업(20만톤/년)과 유청 공동처리시설을 지원하고, 홍콩 · 대만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7년까지 시 · 군 농업기술센터 10개소에 농식품 가공플랜트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1인 기업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하고, 식품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한식당 2만여개도 육성키로 했다.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를 위해 소비자 · 생산자 · 전문가 · 업계 · 언론 · 정부 6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축장 위생 점검 강화 등 소비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2013년까지 8종으로 통폐합하고 2012년부터 공통 인증고로를 도입,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키로 했다.

▶ ▶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4조 지원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신 · 경부리)을 위해 정부에서는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 9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4조원 규모의 자본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방안을 담은 '농업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했다.

당초 농협은 지난 7월 29일 자산 실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농협은행 · 농협보험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본금 수요 등을 토대로 정부에 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의 거쳐 지원규모를 최종 4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농협의 요구액에는 다소 못 미치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이며, 향후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가세이연 등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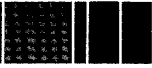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이번 부족자본금 지원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 구조개편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주고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신설법인이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 국경검역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9월 30일 (사)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회장 송동근)



와 국경검역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해외 여행자를 통해 수입금지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자는데 뜻을 같이함으로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외여행인솔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 홍보 및 교육, 해외 질병 발생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한국국외여행인솔자 협회는 해외 여행자들이 국내반입이 금지된 각종 농축수산물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현지 방역지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 검역물 반입금지 등 홍보를 실시해 왔으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 프로그램에 국경검역 내용을 반영하고, 이들이 국경검역 홍보요원으로 활동함으로써 해외 전염병 국내유입을 막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011년 6월 15일 3개 검역기관(동물, 식물, 수산물) 통합으로 각 기

관별로 실시해오던 국경검역 교육·홍보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됨으로써 기관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시아 국가 '동물검역 기술 세미나' 첫 개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8일간) 태국 등 아시아 8개 국가 검역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검역기술 세미나」(Seminar on Animal Quarantine for Asian countries)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 국제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시스템, 수입위험분석 제도,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국가 잔류물질 검사 체계와 축산물 미생물검사 체계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국경검역 현장,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실험실과 축산물 생산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출입 동물·축산물 검역검사 시스템을 이해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아시아 각 국가의 교류증진 및 교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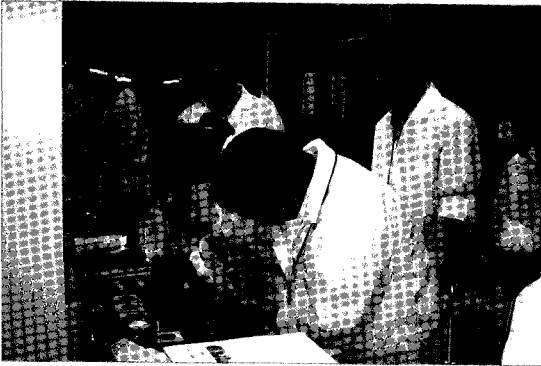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 각국 참석자들은 자국의 검역검사 시스템을 설명하고, 국내 수출업체와의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그간 수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와 검역검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검역 접촉창구로 활용하고,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 축산 유용 미생물 배양 교육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정규교육과정으로 '축산 유용 미생물 배양과 활용' 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19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자 21명을 대상으로 손에 잡히는 실습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에서 이용되는 미생물의 배양, 보존, 활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처음 미생물을 접하는 관련공무원들에게는 미생물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이미 미생물 보급사업을 하는 지도직 공무원들에게는 평소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현장활용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축산현장에의 기술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최근 유용미생물은 무항생제와 친환경축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료효율 개선, 항생제 대체,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축산현장에 적용하는 추세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4년간 150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약 60여 개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축산과학원 기금과 황보종 연구관, 인명사전 등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금과 황보종 박사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인명사전인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2) 29판에 이름을 올렸다.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은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인명사전으로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다.

황보종 박사는 1990년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가금영양생리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여년간 가금영양생리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여왔으며, 2004년부터 한국동물자원과학회 국제협력위원으로, 2006년 한국가금학회 학술상, 2011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등 관련분야의 활동 및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농협중앙회

▶▶ 10월부터 두달간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 축산유통부는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2011년 축산물 소비행태 및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 행태를 파악하고 우수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이미지, 구매의향 등을 조사, 분석해 국내 축산물 브랜드 육성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 인증 우수 축산물 브랜드에 대해 집중 조사하며, 전국 축산물 브랜드 판매장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고 최근 3개월간 축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주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 '제2회 우리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지난 9월 4일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그맨 정종철의 사회로 '제2회 우리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산물등급제와 맛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우리 축산물에 대해 바로 알리고 애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하게 됐다.

퀴즈왕 선발대회 외에도 어린이 요리왕 선발대



회, 인형극, 파워블로그 요리레시피, 룰렛게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부모와 어린이가 한 팀을 이뤄 축산물등급제, 부위별 용도 등 우리 축산물에 대한 각종 상식과 정보에 대해서 예선을 통과한 총80팀이 본선 대회에 참가해 퀴즈를 풀었으며, 대상은 인천 백학초등학교 원지수양이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아이패드2와 한우고기세트가 주어졌다.

최우수상은 서울 개봉초등학교 박채은양과 동탄 예당초등학교 윤동호군이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장상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닌텐도Wii와 한우고기세트 등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의왕 부곡초등학교 송지혜, 수원 칠보초등학교 박주연, 인천 박문초등학교 임성욱군이 각각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MP3와 한우고기세트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휴일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퀴즈대회를 비롯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즐겼으며, 농림수산물식품부 권찬호 축산정책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 전국한우협회 우영목 부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활동 개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서비스 제공업체인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iN에 등록된 축산관련 질문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활동을 시작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NHN과 '지식iN 지식파트너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부터 네이버 지식iN에 등록된 축산관련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iN 내 축산관련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으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축산관련 정보가 네이버 지식iN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답변 대상은 소·돼지·닭·계란·말 등급 판정, 이력제 및 축산유통과 관련된 질문으로 평가원은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직원 30명을 선발하여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네티즌들이 축산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단지성을 이용한 지식기부 운동에 동참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원은 지식iN 답변을 통해 얻는 인터넷 기부 수단(적립액)인 '해피빈 콩'을 불우이웃 등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네이버 지식파트너란 지식iN을 통해 유입되는 질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기관 등을 일컫으며, 현재 외교통상부, 삼성전자 등 약 70여 기관이 지식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 '투덜이의 축산은하 탐험!' 홍보 만화책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등급제 소개와 우리 축산물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덜이의 축산은하 탐험!' 홍보 만화책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행된 홍보만

화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획하여 우리 축산물에 대한 이해와 축산물등급제에 대한 설명을 주제로 투덜이가 축산은하(쇠고기별, 돼지고기별, 닭고기별, 계란별 등)를 탐험해 가는 스토리를 통해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계란·닭고기)등급제와 쇠고기이력제 그리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만화책이라고 하여 어린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먹거리의 주요 구매층인 부모들도 함께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자세한 내용은 P78 'Cartoon' 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회복지시설 찾아 나눔경영 실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9월 2일부터 9일까지 임·직원 5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노인·영유아 보육시설 등 각 지역 사회복지시설 13개소와 저소득



가정을 찾아 위문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방역본부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성금 총 4백50여만원을 모금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생활용품과 온누리상품권(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기탁했으며, 아울러 시설 주변의 환경 정리·청소·소독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금년에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본부 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와 따뜻하게 호흡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이화학분야 검사 가능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9월 26일 이화학 분야(조제유류 제외) 검사

가 가능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번호 : 제 2011-2호)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이화학분야는 일반 영양성분(수분, 조단백, 조지방, 회분등), 보존료, 산화방지제, 산도, 아질산이온, 무지유고형분, 휘발성염기질소, 발색제 등으로 업종별·규모별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화학 분야의 검사기관으로의 지정을 추진했다.

기준원은 2009년 9월 미생물분야에 대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이미 지정을 받아 2010년 65건과 2011년 현재 106건의 검사의뢰를 접수 처리했으며, 이번 지정으로 축산물의 이화학 및 미생물 분야의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되었다.

향후 기준원에서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서 원활한 검사업무처리를 위하여 2012년도에는 2개 항목(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2013년도에는 5개 항목(중금속, 다이옥신, 조제유류, 잔류농약, 농약) 등 단계별로 위생검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석희진 원장은 “준정부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5회 찾아가는 무료기술상담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9월 30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들어 다섯 번째로 찾아가는 축산물HACCP에 대한 무료기술상담을 실시했다.

경기도 북부지역 및 강원도에 소재한 축산물 HACCP 지정업소 또는 지정을 준비 중인 업소(농장)와 친환경축산, TMR사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한 이번 기술상담에는 35개 업체 40명이 참여했으며, 6명의 상담원이 1:1 형식의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상담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친환경농업육성, 사료관리법 등 관련법령, 고시의 개정사항과 축산물HACCP의 적용 절차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 순으로 진행했다.

기준원은 앞으로도 거리상의 제약으로 방문상담이 어려운 지역에 실속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축산물HACCP 무료기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석명절 맞아 소외계층 위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9일 안양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문·격려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으며, 지적장애인 수용시설인 '사랑의 집'에 온누리 상품권과 과일 등



60만원 상당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위문금은 기준원 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지난 6개월동안 급여의 우수리를 모아 만들어진 성금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추석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전직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

기준원은 앞으로도 '사랑나눔 봉사단' 활동과 지속적인 위문금 마련을 통해 어려운 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눔의 문화 및 이웃사랑을 계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3저1고

- 저지방
- 저콜레스테롤
- 저칼로리
- 고단백

영양만점 닭고기 먹고 힘내세요!